



2026 이란 전쟁 시나리오: 핀셋 타격을 넘어 전면전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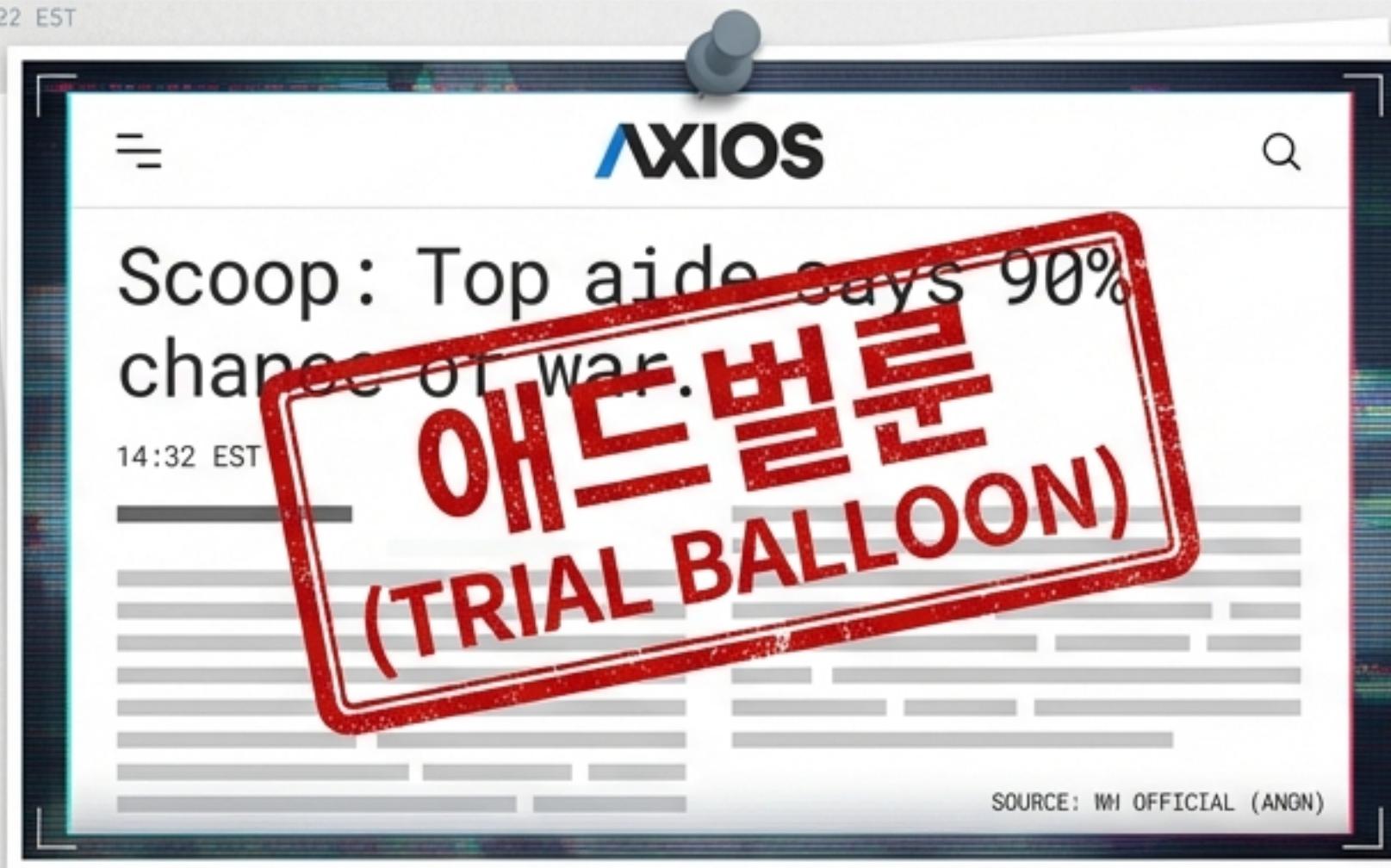
Iran War Scenario 2026: Beyond Pinpoint Strikes to Total War

미국 언론 보도의 진실과 워게임 시뮬레이션

본 리포트는 ‘박종훈의 지식한방’ 분석을 기반으로 재구성된 지정학적 리스크 평가 보고서입니다.

90% 전쟁 확률 보도의 실체: ‘애드벌룬’ 효과

14:22 EST



ALERT CRIMSON

14:32 EST



SLIDE BLUE (MM)

The Leak

악시오스(Axios)가 백악관 참모를 인용해
‘전쟁 발발 가능성 90%’라고 보도.
이는 단순 누설이 아닌 의도적인 정보 공개.



The Test

위험한 정책 시행 전 여론과 시장의
반응을 떠보기 위한
‘애드벌룬(Trial Balloon)’ 전략.



The Result

보도 직후 나스닥 상승.
월가의 ‘학습 효과’(전쟁=단기 호재)로
인해 시장 충격 부재.



Takeaway: 시장이 동요하지 않았으므로, 백악관의 전쟁 시나리오는 ‘그린라이트’를 받은 셈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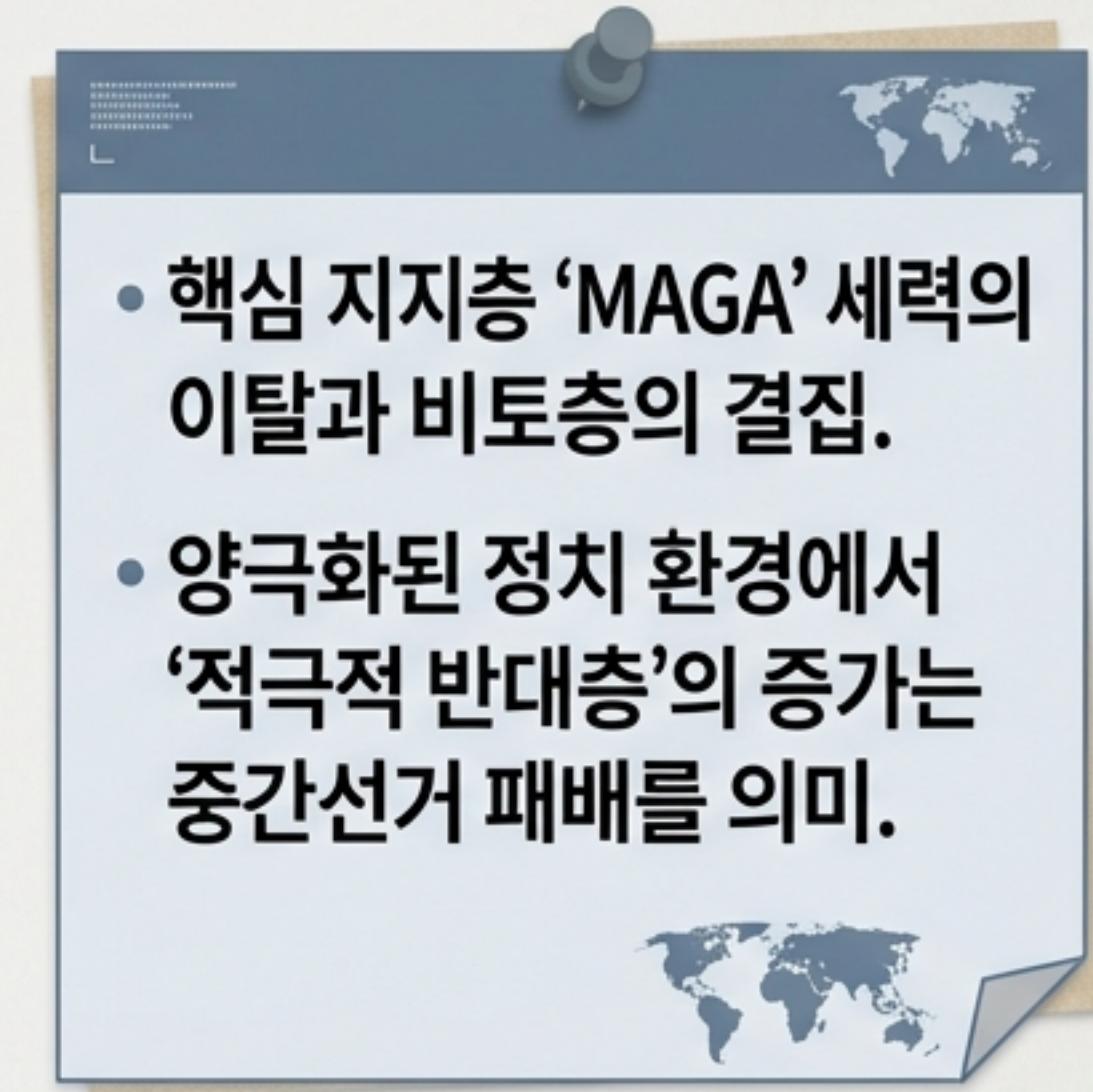
10/17/2015 11:00

트럼프의 정치적 위기: 콘크리트 지지층의 균열

14:22 EST

14:32 EST

ALERT CRITICAL



Insight:

2025년 6월의 핀셋 타격(12일 전쟁)과 같은 '쇼'는 이미 효력을 잃었다.
지지율 반등을 위해선 더 강력하고 확실한 '성과'가 필요하다.

「전략의 수정: 단순 타격에서 ‘레짐 체인지’로」

14:22 EST

14:32 EST



| **Insight: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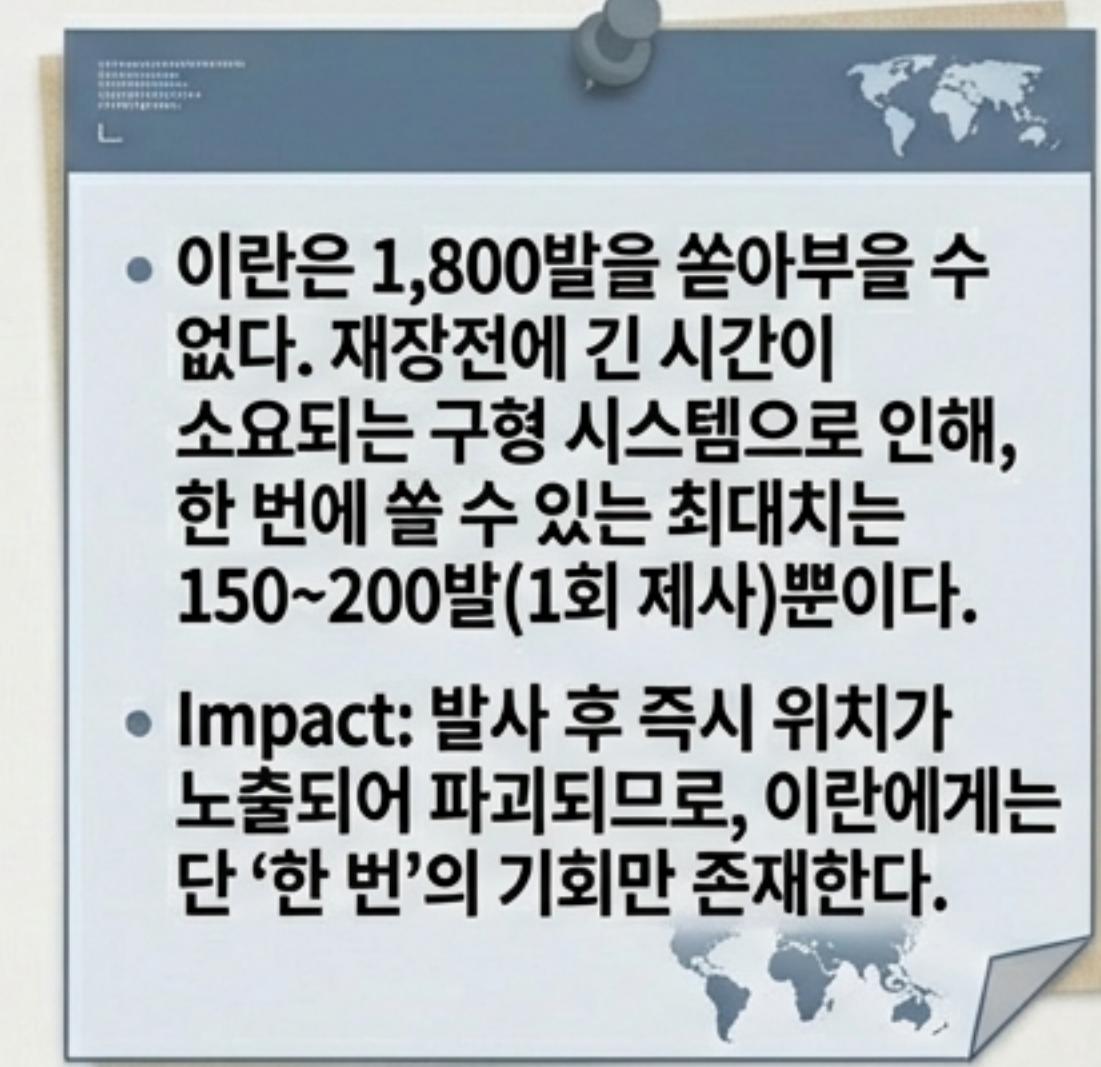
트럼프는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체제를 전복시켜야만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다. 이는 이란이 ‘죽기 살기로’ 반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.

워게임 Red Team: 이란의 치명적 약점, '발사대'

14:22 ES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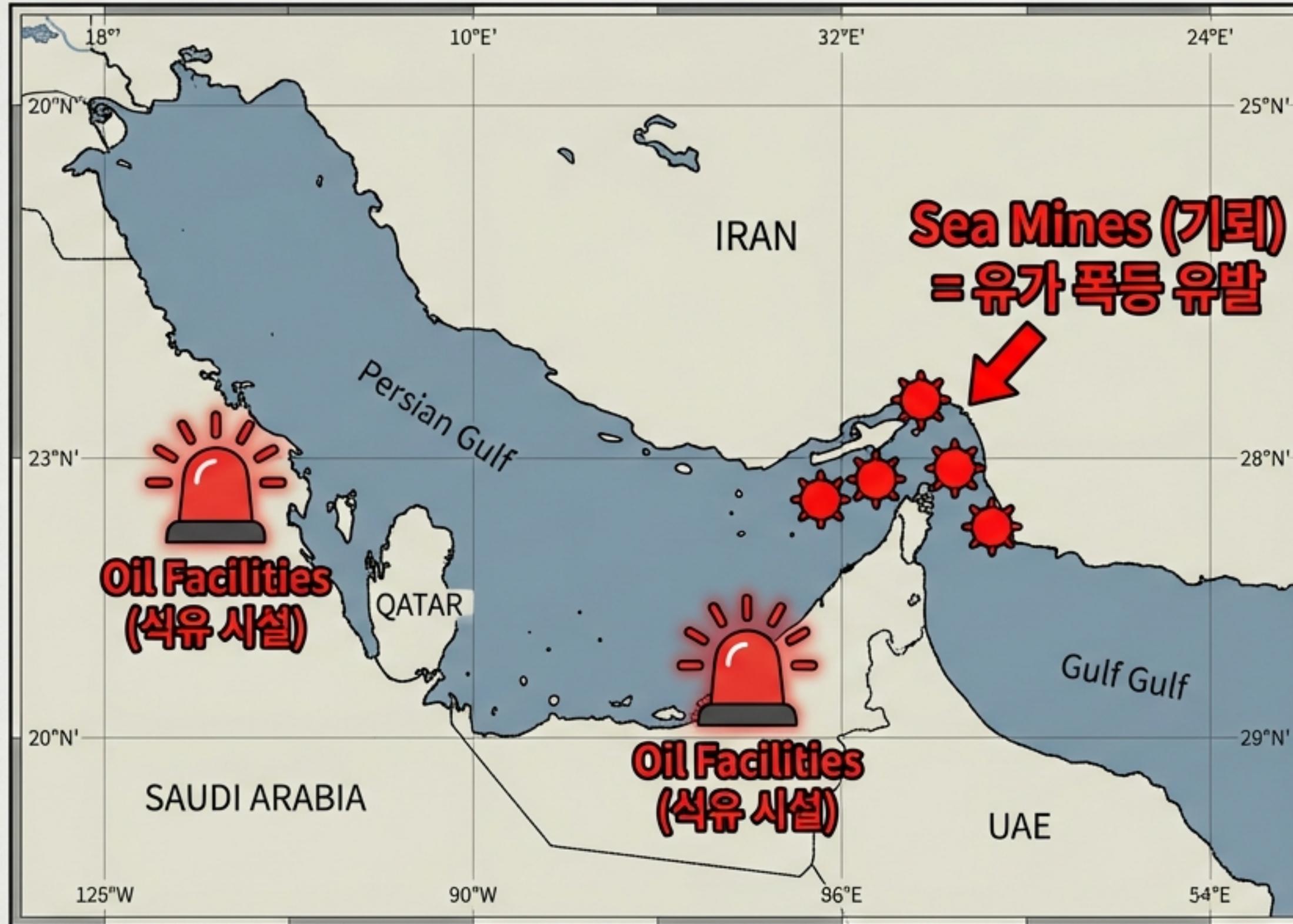
14:32 EST

ALERT CRUCIAL



Insight: 이란은 압도적인 미사일 수량에도 불구하고, 발사대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대규모 공격이 불가능하다. 초기 공격의 파괴력이 곧 전쟁의 성패를 결정짓는다.

이란의 반격 시나리오: 경제적 상호 확증 파괴 (MAD)



Concept:

Economic Mutually Assured Destruction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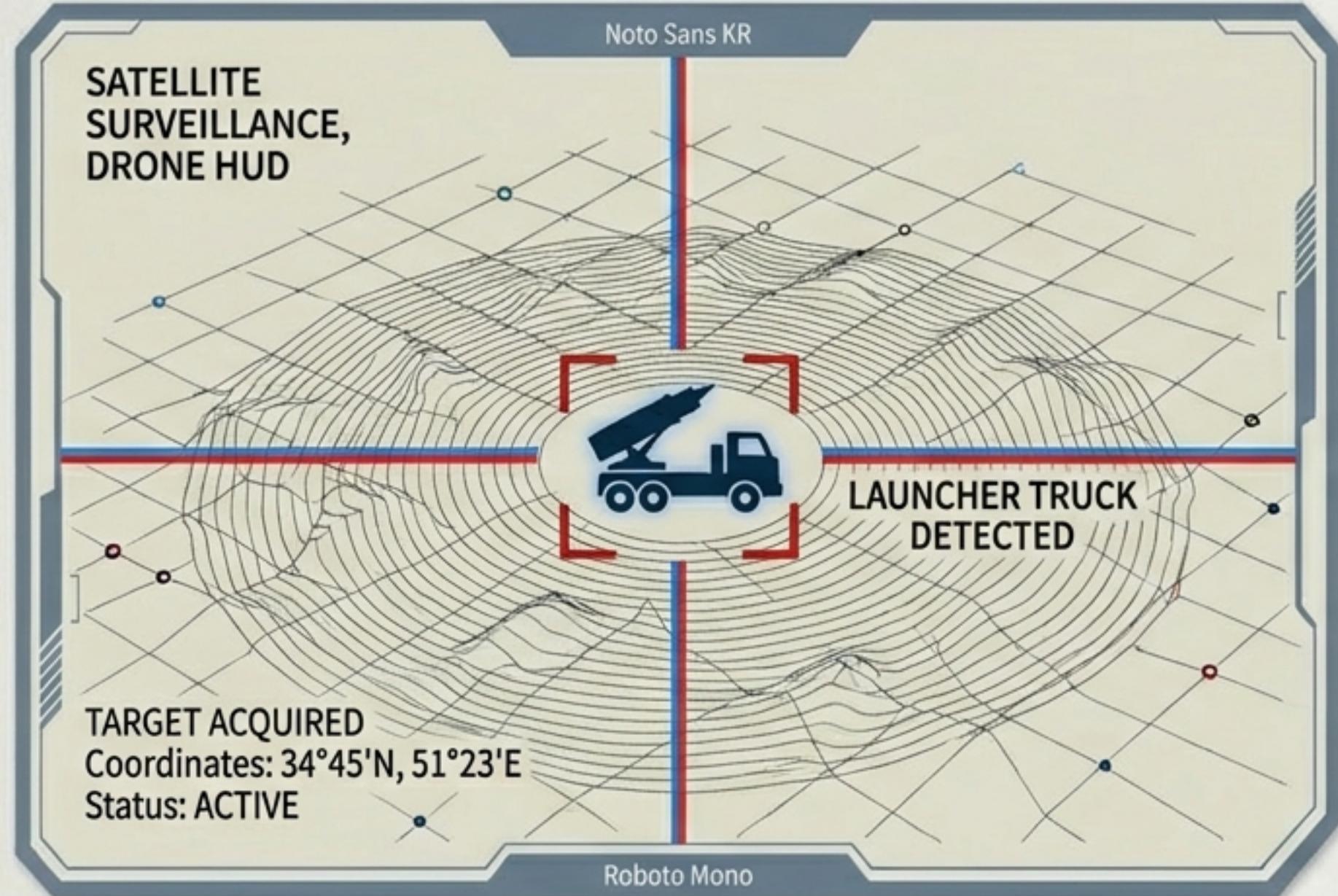
군사적 승리가 불가능함을 인지.
목표는 '너 죽고 나 죽자' 식의
세계 경제 붕괴.

“체제가 붕괴된다면,
세계 경제도
길동무로 삼겠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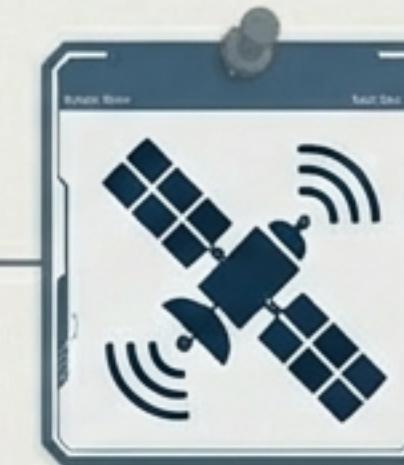
워게임 Blue Team: ‘발사대 150개’를 사냥하라

14:22 EST

14:32 EST



HUMINT
(모사드 정보원 매수)



Satellite Recon
(위성 정찰)



Air Defense
(잔존 미사일 요격)

Objective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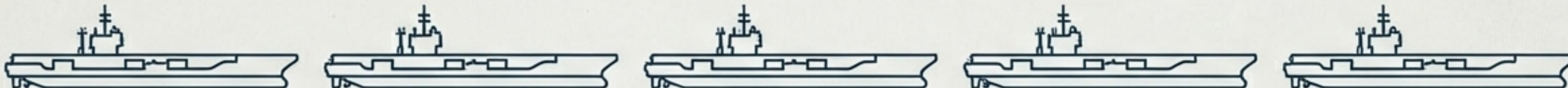
이란이 ‘경제적 MAD’ 카드를 꺼내기 전에 150~200개의 발사대를 선제 타격하여 무력화.

Key Insight:

발사대만 제거하면 이란은 1,800기의 미사일이 있어도 쓸 수 없는 ‘종이호랑이’가 된다.

이미 시작된 전개: 방어가 아닌 공격 대형

US Naval Power Projection



Total Active US Carriers (5)



Deployed to Region (2)

40% of Total Naval Power Concentrated.

- Logistics:** 미군 수송기 150회 이상 무기/탄약 중동 이송 확인.
- Air Power:** F-35, F-22 등 스텔스 전투기 50대 추가 배치 (2월 17일).

Intelligence Assessment

B-2 폭격기만 동원했던 작년 ‘핀셋 타격’과 달리,
이번엔 **대규모 점령전**을 위한 물류 이동이 포착됨.

결정적 타임라인: 3월 31일 데드라인



Roboto Mono

| **Political Trigger:** 3월 31일까지 예산안 미통과 시 네타냐후 총리직 상실 및 사법 처리 위기.

| **Survival Strategy:** 전쟁 발발 시 ‘전시 내각’ 체제로 전환되어 정치적 생명 연장 가능.

| **Conclusion:**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존 본능이 라마단 리스크를 압도할 가능성 높음.

Roboto Mono

Strategic Assessment

3월 31일은 네타냐후의 ‘**정치적 생존**’이 걸린 데드라인이며, 라마단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쟁 발발의 **핵심 트리거**로 작용할 것.

월가의 오판: '학습 효과'의 함정



Market Sentiment:

- 2025년 핀셋 타격 당시 주가 상승 경험. '전쟁 = 단기 호재'라는 확고한 믿음.

The Blind Spot:

- 월가는 이번 전쟁이 단순 타격이 아닌, **이란 정권의 생존이 걸린 전면전**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.

Risk:

- 트럼프의 '경제 영향 없음' 확인을 시장이 맹신 중.

Strategic Assessment

월가의 '학습된 낙관'이 전면전의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있으며, 이는 심각한 시장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.

블랙 스완: ‘더티 워(Dirty War)’의 늪

- Lone Wolf

Asymmetric Warfare
(비대칭 전력)

Low-Cost Terror



Strategic Assessment

- Scenario: 정규전 패배 후, 이란 혁명수비대와 프록시(헤즈볼라)가 민간인 복장으로 게릴라전 게릴라전 전환.

- Market Nightmare: 이라크/아프간 전쟁처럼 ‘끝나지 않는 전쟁’으로 변질될 경우, 월가의 학습 효과는 붕괴되고 공포장이 연출될 것.

Executive Summary: 관전 포인트



- Motivation:** 트럼프(지지율)와 네타냐후(감옥)의 정치적 생존 본능이 전쟁을 가리키고 있다.
- Capability:** 미 항모전단 2개와 대규모 물류 이동은 이미 공격 태세를 갖췄다.
- Variable:** 미국/이스라엘이 개전 초기에 이란의 발사대 150개를 완벽히 제거할 수 있는가?
- Risk:**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고 ‘더티 워’로 확산될 경우, 금융 시장의 낙관론은 치명적일 수 있다.